

쌀 7천 포대에 담긴 사랑 동포 사회에 전달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 종료

남가주교계의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총 6만4,330달러가 모금됐고 현재까지 6,500여 명에게 쌀이 전달됐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랑의 쌀 운동을 종료한 1월 31일 현재, 28개 교회가 2만 5,510달러, 35개 단체가 1만6,200달러, 90명이 2만2,620달러를 모금했다. 모금은 종료됐지만 쌀 쿠폰은 현재도 발행 중이라 그 수혜자가 최대 7,000여 명에 이를 수 있으며 교협은 이 결과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쌀 한 포대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7.90달러이므로 어림잡아 7,000명에게 쌀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총 5만5,300달러면 족해 결국 9,000달러 이상이 흑자로 남는 셈이다. 교협 관계자는 “남는 금액은 사랑의 쌀 기금으로 지정돼 내년으로 이월되며 다른 용도가 아닌 사랑의 쌀에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협의 모금액 6만4,330달러는 지난해 8만3,893달러에 비교할 때 1만9,563달러나 적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금액에서 쌀 구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4만9,879달러였다는 점에서 쌀 구매만 놓고 보면 오히려 모금액이 1만4,451달러 높다. 각종 행정비는 교협이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광고는

남가주 지역 언론사들이 무료로 후원해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 적은 모금액에도 불구하고 쌀 구매 금액을 높인 중요한 요인이 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9,681포대가 배부됐지만 올해는 최대 7,000포대가 배부되고 이월금이 남는 식이 됐다.

모금 자체로만 볼 때도 지난해와 다소 기온 차가 느껴진다. 지난해에는 남가주 지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모금이 전개됐으나 올해는 나성순복음교회가 2천 달러, 남가주사랑의교회가 1천 달러, 새생명비전교회가 2천 달러, 주안예교회가 1만5,310달러 동참한 것 외에 딱히 대형교회라 할 만한 교회의 참여가 없다. 오히려 중소형교회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한 양상을 띤다.

단체의 경우에도 교계 단체 중에는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벨리기독교교회협의회, 벨리원로은퇴목사회, 샌버나디노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등이 모금에 동참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행사를 함께 했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던 점이 눈에 띈다.

김준형 기자



OC교협 주최로 2015년을 여는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약 30여 단체로부터 100여 명의 교계, 정계, 동포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기도와 섬김, 연합과 감사함으로”

OC교협 주최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열려

지난 14일 오렌지카운티(OC)를 대표하는 교계, 정계, 동포사회 인사들이 기도하고 섬김, 연합과 감사함으로 보다 살기 좋은 OC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매년 초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해 온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는 올해 약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하며 연합의 힘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선출된 한인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미 주류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영 김 주하위원장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조찬기도회로 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주 수요일마다 동료 의원들과 조찬기도회를 하고 있다”면서 “주님의 다스

림을 받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미셸 박 스틸 OC 수퍼바이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자 한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린다”고 말했다. 피터 김 라팔마 시장은 한인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한 일을 언급한 후, “1세들의 기도 위에 2세들이 잘 되고 있다. 많은 한인 동료들이 정치권에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은 “OC 지역의 정계와 교계, 한인사회가 건강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참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한 김기동 OC교협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의 향기를

내는 꽃을 심자”고 위로한 후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김가등 OC한인회장, 권석태 OC-SD평통회장도 참석했다. 특별히 조이폴미션코러스와 CTS스트링앙상블이 축하 공연을 했고 미국의 신앙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OC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 참석자들은 올 4.5월 방미해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아베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 없이는 국회 연설을 할 수 없도록 타 한인 단체와 함께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목사회 96주년 삼일절, 112주년 이민 기리는 음악회 준비



이 행사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 (왼쪽부터)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와 수석 부회장 엄규서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삼일절 96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1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와 음악회를 오는 3월 1일 주일 오후 6시 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에서 개최한다.

예배에서는 피종진 목사가 설교하며 음악회는 송규식 목사를 음악감독으로 해 준비 중이다. 백지영 회장은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일으킨 삼일운동을 기리고 이민 112년 동안 한인들의 위상이 미국 주류사회 내에서 크게 신장된 것

을 감사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송규식 목사는 “찬양과 가곡, 민요 등 다양한 장르로 역사적인 음악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서는 피아노에 진정우 박사를 시작으로 클라리넷 백철, 첼로 에스더 추, 소프라노 황혜경, 지경, 테너 전승철, 베이스 장진영 등과 미주여성코랄, 필그림남성합창단, 글로리아찬양단, 에버그린합창단, 코리아아메리칸영아티스트 등이 참여한다. 티켓은 20달러이며 문의는 323-708-9191로 하면 된다.

예수님 고난과 사랑 묵상하는 사순절

지난 18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2015년 부활절을 향한 사순절이 시작됐다.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은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영적 성숙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성영락교회는 수요일 예배를 재의 수요일 예배로 드리면서 성장식을 거행했다.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수요일예배에서 “나의 죄의 고백서”를 태우는 예식을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 등은 주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되새기며 성결과 거룩을 힘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의 신앙 일독을 독려하고 있다. 나침반교회는 부활절 전 2주간을 특새 기간으로 보낸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sarang.com
기독일보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2015년 표어: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시 22:30)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1시 2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2부,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대학부
 ■ 청년부/현대대학부: Passion5 ■ 영어청년부(NEXT): 금요일 오후 7시 (사랑채) 오후 1시 20분(본당) ■ 영어대학부: 오전 11시 20분 (은혜채)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예배: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KDC)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 (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김성희 목사(왼쪽)와 김천환 목사(오른쪽)

사랑의띠선교회, 김성희 목사 초청 특별집회

사랑의띠선교회(대표 김천환 목사)에서는 지난 12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특별집회에 신유 집회 인도로 유명한 김성희 원로목사(하와이갈보리교회)를 초청, 영육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소망을 전해주었다.

카이로스워십(대표 김민경 선교사)의 몸찬양으로 시작된 집회에서 김성희 목사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9:1-8)는 주제로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말

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는 피할 길이 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예비된 칠천의 용사를 본 것처럼,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랑의띠선교회는 지난 1984년에 설립돼 장애우를 위해 꾸준히 섬겨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엘림장애인선교회 LA지부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주지역의 장애우 섬김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찬양예배 순서를 맡아 섬겨준 남가주광염교회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Wings of Joy' 찬양팀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우성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아홉 번째)

말씀과 공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찬양예배

남가주광염교회에서 Wings of Joy 등 아름다운 찬양 선사

말씀과 공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하늘 문을 여는 찬양예배가 지난 15일(주일) 오후 12시 남가주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 찬양예배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한인뿐만 아니라 지역 히스패닉 교회 성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정우성 담임목사는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삽시다"(엡5:15-21)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진다. 둘째, 찬양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찬양 중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찬양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충만이다.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되어야 한다"며 찬양을 생활화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기존의 찬양예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연주와 찬양 시낭송 등으로만 꾸며진 특별한 음악예배 형식을 빌어 진행됐다. 이는 참가 성도들 각자가 성령님의 터치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도들 모두가

그 목적인 바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예배가 됐다.

또한 찬양팀으로 함께 하며 섬겨준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 소속 'Wings of Joy' 찬양팀은 그 분야 최고의 프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답게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멀리 동부에서 달려온 흑인계 Madison Gree는 "I'll Rise"란 제목의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으며, 이 교회 성도인 이영인 집사는 시로, 히스패닉계 오마르 페리취 목사는 축도함으로 함께 섬기며 은혜롭고 아름다운 음악예배를 마무리했다. 이영인 기자



올해도 KAC가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한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KAC 웹사이트

“열려라 인맥, 쌓여라 경험”

KAC, 2015년 여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접수

한인 대학생들이 주요 기업 및 정부, 언론 기관, 법률 회사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매년 한미연합회(KAC, 이사장 헬렌 김)가 마련하는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SCIP)은 한인 대학생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한발 더 나아가 인맥을 쌓고 자신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헬렌 김 이사장은 "올해로 30년째인 SCIP는 대학생들이 경력을 쌓고 전문성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한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다. KAC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8주간 정부 기관과 기업체, 비영리 단체, 언론사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서와 이력서, 추천서 2

개, 에세이 2개 등과 함께 신청비 20달러(payment to: KAC)를 2015년 2월 27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KAC로 보내야 한다. 지원서 및 안내 자료는 www.kacl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인턴들은 6월 22일~26일까지 KAC 전미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NCLC)에 참가한 뒤,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주일에 40시간씩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 사무실, 언론 및 기업,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게 된다. 작년에는 존 치행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사무실, 바버라 박서 연방상원의원 사무실 등 정치인 사무실을 비롯해 주류 언론인 KTLA, FOX, KCBS 등이 인턴십 제공 파트너로 참여한 바 있다. 문의) 213-365-5999 김준형 기자

정창균 목사의 재즈 가스펠 콘서트

한국의 1세대 색소폰 연주자, 3대의 색소폰을 동시에 연주하는 기네스북 등재자, 재즈 가스펠의 선구자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정창균 목사의 제3회 재즈 가스펠 콘서트가 15일 세계야가페선교회에서 열렸다.


LA타임즈, 폭스TV 등 주류 언론은 물론 한국에서도 SBS 스타킹, KBS 열린음악회 등에서 주목을 받은 정 목사는 이날 자신이 주님을 만난 간증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를 재즈 형식으로 편곡해 연주할 때에는

수분에 걸친 씩씩한 고음 애드립에 정창균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또 정 목사는 "성자의 행진(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자신만의 특기라 할 수 있는 3대의 색소폰으로 동시에 연주했다.

또 찬양가수이자 정 목사의 아내인 정태미 사모가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등을 불렀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 콘서트에서는 조이풀중창단, 세계야가페선교회 멕시코 선교팀, 글로벌메시아선교합창단도 출연해 뜻을 모았다.

김준형 기자



| | | | |
|---|--|--|--|
|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 |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 |
|  |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 |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
| |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 |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
| | |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

 **성서유니온선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

“빌링보서”

<일시 및 장소>
3/4(수) 저녁 7시 LA 충현선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el. 818-549-9191
3/11(수) 저녁 7시 OC 로덤장로교회
1759 West Broadway Anaheim, CA 92804
Tel. 714-956-7640



대상 : 매일성경 미주 독자 및 목회자, 신학생, 모든 평신도
강사 : 황진기 목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Ph. 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 D Min.원장)
문의 : 김진국 목사(714-876-8832)
주최 : 매일성경 미주 서부 사역 위원회

한인들도 그랜드캐년에 창조박물관 열자

박창성 목사 5백만 달러 모금 계획 발표



박창성 목사가 LA를 방문해, 창조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창조선교회(World Creation Ministries)의 박창성 목사가 창조박물관 건립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인 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동안 박 목사는 이 선교회 대표로서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하며 창조론을 설교했고 창조선교학교나 창조과학탐사여행 등으로 교육 활동도 했다.

그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진화론이다. 학교 교육이 창조론을 특정 종교의 신앙으로만 규정하고 진화론만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거부하게 된다”면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걷어내고 창조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복음 전파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하면서 진화론적

사고에 몰입되었으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전공인 지구과학이 성경과 배치된다는 데에 혼란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미국창조과학연구소로 유학와 지질학과 과학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창조론에 확신을 갖게 됐고 이어 웨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본격적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건립하려는 창조박물관은 캔터키 주 피터스버그에 위치한 창조박물관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창조과학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가 2007년 건립한 것으로 6만 스케어릿 대지 위에 2천7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이곳은 현재까지 2백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 목사는 이런 박물관을 그랜드캐년 인근에 건립하고자 한다.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그랜드캐년을 노아 홍수의 증거가 가장 선명히 남아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박 목사는 그랜드캐년을 관광하는 연 5백만 명 관광객들에게 창조과학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단 박 목사가 거주하고 있는 오레곤 주를 중심으로 모금이 시작돼 현재까지 1만8천 달러가 모금됐으며 30만 달러가 모금되면 미국교계에도 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최소 모금액은 5백만 달러다. 박 목사는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지만 3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면 뜻있는 미국인들도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503-330-2971

김준형 기자



캔터키 주에 AiG가 설립한 창조박물관. 인간과 공룡이 공존했음을 말해주는 이 전시물은 창조과학자들, 젊은지구론자들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박 목사는 이 창조박물관을 모델로 그랜드캐년에 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Karam Anthony K/ wikipedia.org



2015 찬송 페스티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한 미주찬송가공회 임원들. 이사 이경호 목사, 부회장 오성애 권사, 회계 김용섭 장로(오른쪽으로부터)

미주찬송가공회 “찬송 페스티벌”

2월 28일, 교회음악과 찬송가의 건전한 발전 위해

미주찬송가공회(회장 박재호 목사)가 주최하고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김활용 목사)가 후원하는 ‘2015 찬송 페스티벌’이 오는 2월 28일(토) 오렌지카운티 로메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8개 선교합창단 및 바리톤 김동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찬송 페스티벌은 올해가 3회째이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찬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단순히 일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한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도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찬송가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드리는지를 체험케 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찬송가에 대해 뚜렷하게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에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주최측은 1년 전부터 기도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참가 확정된 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다.

레위남성성가단(단장 김홍일)/조이풀남성합창단(지휘 서문욱)/한아름성교회합창단(지휘 이경호)/사랑여성성가대(지휘 황영옥, 주안예교회)/시온찬양대(지휘 김인용, 로템장로교회)/CCM 밴드(리더 강지나, 캘리포니아 아트대학)/예향성가대(지휘 이영진, 남가주사랑교회)/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바리톤 김동근.

한편, 지난 2002년 5월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미주찬송가공회는 올바른 찬송 보급을 통해 세계 복음 선교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창립 이래 교회음악공로상 시상이나 찬송가 신작 발표회를 갖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인 기자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이형석 목사 초청 부흥성회



이형석 목사와 방상용 목사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가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이형석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집회에서 이형석 목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3세대의 하나님” 등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교회는 모든 집회를 마친 15일 오후 4시에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고 지난 30년간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지난 2월 6-8일에는 천관웅 목사 초청 찬양집회도 개최한 바 있다. 문수현 기자

건강한 이민교회 평신도 세운다

평신도를 사역의 동반자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교회 국제 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이민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총 16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다. 주강사로는 본국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인 노창수 목사 등이 나

선다. 국제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의 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소그룹 이론에까지 제자훈련 사역 전반을 소개하며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수료했다. 문의) 714-635-3000 이메일) dmmi@sarang.com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리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대형마트에서 서부인명당)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 | | | |
|-----------|-------|-----------|-------|
| 100g 소비자가 | \$90 | 240g 소비자가 | \$185 |
| 2개 구입시 | \$150 | 2개 구입시 | \$320 |
| 3개 구입시 | \$180 | 3개 구입시 | \$355 |
| 4개 구입시 | \$230 | 3개 구입시 | \$450 |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www.podental.com

피.오.덴.탈 Dental Plan \$10/월

MONEY BACK GUARANTEE 30 DAY MONEY BACK GUARANTEE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카드를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오덴탈은 필요한 치료만 정직하게 제공합니다.

전화가입 (213) 944-5067 (714) 713-1735

온라인가입 www.podental.com

| | |
|-------------------------------------|--------------------------------|
| ★ 코페이: \$35/visit | • Deep Cleaning: \$75/quadrant |
| • Exam: 무료 | • 발치(Soft Tissue): \$40 |
| • X-ray: 무료 | • 발치(Partial Bony): \$65 |
| • Scaling: 무료 | • 발치(Full Bony): \$75 |
| • 발치(Simple): 무료 | • 크라운(PFM): \$300 + options |
| • Filling(Amalgam): \$5/surface | • 신경치료: \$150+ |
| • Filling(Rasin Base): \$15/surface | • 틀이(Full): \$375+Lab fee |

Service Location: Los Angeles, Torrance, Fullerton/Anaheim/Cerritos/Norwalk, Riverside Irvine/Garden Grove/Santa Ana, Rowland Heights/Diamond Bar

This plan is not insurance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insurance. The plan provides discounts at certain dental care providers for dental services. The plan does not make payments directly to the providers of dental services. Plan members are obligated to pay for all dental care services. PEOPLE ORIENTED HEALTH CARE, INC. 626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1-800-341-0884 FAX. 714-644-8223 WWW.POHEALTHCAE.COM

·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삼복가든



이석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미국 땅에서 음력설을 맞이하는 2월의 뒷자락이다.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간다.

행복은 인간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인간의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창조와 축복의 에덴동산을 나는 ‘삼복가든’이라 부른다. 행복한 삶의 조건인 세 가지 복을 주신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다. 흠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하셨다.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사람의 복이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지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다른 인격체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 욕구가 채워진다고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없었고 이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돕는 짝을 주셨다. 사람의 복을 주신 것이다.

삼복가든의 세 번째 복은 영혼의 복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진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해도 영혼의 평화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혼의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경고대로 인간의 범죄는 영혼의 죽음을 불러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혼의 평화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벌거벗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떨고 있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러 찾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인간을 용서하시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다.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동물,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

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다. 죽었던 우리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복, 영혼의 복을 주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만들기 위한 선택 말이다.

복과 행복은 다르다. 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상황이고 행복은 우리의 반응이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이지만 미국인들은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기 바란다는 것이다.

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을 많이 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택은 누리고, 관리하고,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복을 많이 받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질과 건강,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즐기자. 하나님을 즐기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자.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그만 하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절제와 균형을 말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면 좋지 않고 과소비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에게 너무 몰입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나 연인이든, 또는 지

도사이든 말이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여 종교중독 같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의 복, 사람의 복, 영혼의 복 중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물질의 복에 몰두하느라고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 반대로 영적인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느라고 물질과 건강, 그리고 인간 관계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이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고 이브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복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선택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큰 행복이다. 나 혼자만 복을 누리지 않고 남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물질의 복을 나누자. 혼자 5인분을 먹는 것보다 다섯 명을 먹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사람의 복을 나누자. 사람을 내 울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자.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해 도와주자. 영적으로 복 받았다고 오히려 자만과 교만에 빠져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자.

먼 옛날 에덴동산에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삼복가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잘 관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한다면 말이다. 이 음력설에 그런 소원을 빌어본다. 올해의 남아 있는 시간과 평생 동안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이 넘치는 삼복가든이 되기를 소원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라이프!

-이석철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올리언스침례신학교(M.R.E., M.C.M.)와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교육으로 목회를 보다」, 「기독교 성인사역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서 그리고 현대 가정」, 「탁월한 지도력」, 「예수의 기도」 등이 있다.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향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성적이 상승하여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11번째 간증> AP 마음대로 선택



Miso Lee 양
UCSD

그러나 나는 WMS를 택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다.

WMS에서는 AP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SAT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AP와 SAT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WMS의 선생님들은 학생의 약한 점을 보완해서 가르쳐 주셨고 정세영 교장선생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Support 해 주셨다. WMS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음 호에 계속>

<10번째 간증> 장단점 발견, 시간 관리 철저



Matt Cho 군
UCSD

많이 받게 되어 AP, SAT II 성적

나는 유학생이다. WMS는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AP, SAT II 성적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선교사님들께
GO!전도지를 보내세요!
28개 언어로 이미 730만부 이상
인쇄된 강력한 복음의 도구



조영장

- ANC은누리교회 전도사역담당 12년 역임
- GO!전도집회/세미나 강사 (전국 한인교회, 멕시코교회)
- GO!전도 추천도서 출판: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 GO!전도지 28개 언어로 730만부이상 인쇄
- GO!전도사역원 책임강사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미주한인교회의 전도사역에 의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미주한인교회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GO!전도사역원, Los Angeles, CA
www.GoNowSave.com
Tel: (661) 575-7744

다인종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GO!전도지



- (1) 한국어 (2) English (3) Spanish (4) 일본어 (5) 중국어 (6) Arabic (7) Burmese (8) Cambodian (9) Filipino-Tagalog (10) French (11) German (12) Haitian (13) Hindi (14) Indonesian (15) Italian (16) Javanese (17) Polish (18) Portuguese (19) Punjabi (20) Russian (21) Swahili (22) Telugu (23) Thai (24) Turkish (25) Ukrainian (26) Urdu (27) Vietnamese (28) 2개 언어 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29) 2개 언어 전도지(한국어 & 영어) (30) 3개 언어 전도지(영어, 스페니쉬 & 한국어) (31) 어린이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당신도 미국땅의 다인종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남미 대륙의 다민족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GO!전도지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주한인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희소식!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FREE GIFT!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GO!전도지 샘플과 GO!전도현장의 생생한 감동의 책,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를 FREE로 보내드립니다. Email: sync@GoNowSave.com (보내주실 내용: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교회 주소, 우송 주소, 전화번호)

GO!전도집회/세미나를 추천합니다!

2일간의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정립/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복음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신 수많은 놀랍고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 14~2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모세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의 신앙이 모세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염려한 하나님께서 아를 격려하심으로 "나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사명적 의욕을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11지파에게 경계를 정하여 지역을 나누어 주었고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고센을 유월절에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남녀노유 약 200만이 출애굽 하였으나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갈렙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에 이르게 하고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서 환경의 조건은 넘치게 기대하는 허욕이 많습니다. 이것은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이 다가와서 백성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애타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씀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의 과정과 모세의 시종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지난 역사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달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지덕지하면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더 잘 섬기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지를 않고 유브라데스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참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제사 드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며 자신의 집에 귀신들이 더 많이 와서 자신들을 더욱 못살게 괴롭히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행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집사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거들어 준다든지, 제사에 참여하는 남편 집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자가 그 음식을 먹든지 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염려가 되며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0-21의 말씀을 처신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순수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배우고 순수한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순수하고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래서 애가 탐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여 우상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더 커서 또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문을 당해도 하늘나라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늘의 소망을 결심 하려는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그 때 우리를 요긴하게 들어 쓰십니다.

2.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공인하시고 보증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신실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는 사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따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2대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아니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애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버리기 싫으면 차라리 멸망의 길을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

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에 따르며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저분한 생각과 오염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대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권사님이면서 화투장을 펼쳐 놓고 오늘의 운이 어떨지를 때어보는가 하면 집사님이 우환질고를 떠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 점쟁이를 찾아 푸닥거리를 하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은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잘 믿는척 하다가 지옥가면 얼마나 후회하고 울립입니까?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의 횡포에 시달리지 말고 험벗고 굶주리며 고문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위협당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은 변함없고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100% 인정하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3.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죄값에 대하여 오히려 불평만을 하나님께 더 늘어놓는 것은 더 많은 채찍질을 청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사는데 다른 이성과 놀아나는데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남자 내 여자라면 내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관심이 있을 때 상처가 되며 속이 상해서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시켜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였고 기업의 후사로 우리를 가꾸시며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새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른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흑복을 내리신 후에도 다시 주신 복을 거두시고 돌이켜 화를 내리실 것이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본문 21-25절에서 처럼 재차 확인 있는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짐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사자로서 백성들의 신앙고백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임을 확인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피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짐승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음으로 흘린 피를 담아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심정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뜻을 좇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교회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크리스토 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 워싱턴DC.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주말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 |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 | | |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 |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 크리스천 헤럴드 | 7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태어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미주총신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포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독서와 안경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의 내용이 너무 좋은 데다 눈이 피곤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맛 같은 독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한 권을 다 읽어도 눈이 피곤하지 않으니 또 한권을 읽기 시작했다. 눈은 여전히 피곤하지 않았다.

이게 웬일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몇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은 책의 내용이 흥미있고 은혜로웠다. 책의 활자도 큼직큼직하고 편집도 읽기에 좋도록 잘 돼 있었다. 당근을 섭취한 것도 효과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리딩 글래스가 아닌가 싶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리딩 글래스를 따로 사용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력이 약한 필자는 안경 자체가 생활의 큰 도움이지만 리딩글래스가 독서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어디 안경뿐이라? 가만 보니 생활 구석구석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안경이 없었으면 책은 커녕 일상생활도 불편했을 것이다. 좋은 치과의뢰도 아니었으면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버렸을 것이고 마이크가 없었으면 내 목은 예전에 이미 망가지고 말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랑의 끈으로 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미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겠구나 싶다. 그러니 어찌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필경 필자처럼 누군가의 도움,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 모두는 그저 자나 깨나 주님과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이다. 나이가 들수록 종합비타민을 먹게 된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사라져 병이 든다고 한다. 진정한 몸과 영혼의 비타민은 감사라고 하는 천연영양소이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비타민을 먹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비타민이 독소로 변할 수도 있다. 감사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가 2015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결심한대로 생각한대로 행동한 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든지 또는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감사의 축복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감사는 '영혼의 창'이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 당신의 표정을 거울에서 보라. 짜증스러운 얼굴이나 화난 얼굴은 아닐 것이다. 감사의 얼굴은 미소 짓는 모습, 부

드러운 모습, 겸손한 모습, 감동의 얼굴이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 등에서 감사의 언어가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좋은 인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토록 감사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감사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사실 이민자의 삶이 꼭 감사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

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일 어설 수 없는 절망이 찾아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시84:11, 롬8:32)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장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며 이 믿음을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선불감사'이다. 선불감사란 미리 당겨 감사를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매일 보는 성경책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리라", "말을 때에 감사하라 쌓아져 가리리라"

자 시작해 보자.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한다.

고집꺾기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록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집 불통'의 사람이 아니다. 대나무처럼 곧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만, 동시에 자신을 꺾어버리는 일에는 결코 인색하지 않다.

성경은 자신의 고집을 아낌없이 깨뜨려 버린 자가 위대한 은총을 입을 예를 여러 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기드온이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13만 5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3만 2천명. 산술적으로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다.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 그것은 '버리라'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명. 이제 남은 자는 1만 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은 1만명 중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9천 7백명을 버리라고 말씀한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겨우 3백명. 처음 싸우겠다고 찾아온 3만 2천명의 1%도 안되는 숫자이다. 이 1%도 안되는 병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병사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싸움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쯤되면 자신의 고집을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닐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렸다. 그러자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미디안 13만 5천명을 깨뜨려 버린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고집을 꺾은 자이다.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의 인생관을 꺾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신적 인생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꺾지 못할 고집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연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 | |
|-----------------------|---|
|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
| 대장암 말기 |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
| 원자력 피해 |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걸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
|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달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
|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뎅글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
| 간질과 약물중독 |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질, 간질중독 호전됨, 복용 후 1900g가 1250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
| 직장암, 대장암 말기 |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나오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
| 심한 아토피 |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
| 대장암 |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식욕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
| 비만, 우울증, 야노증 |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료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
| 심한 당뇨, 고혈압 |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봉(52세, 가디나) |
|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료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
| 심장병, 담석, 전립선 |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
|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달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
|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
|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
| 자폐증 |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
| 혜장암 말기 |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
| 폐암 말기 |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
| 자가 면역 질환 |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달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
|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잘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
| 혈액투석 |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
| 중풍으로 인한 마비 |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
| 임파선암 |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
|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
| 전립선암과 부정맥 |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
| 파킨스 병 | 3달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
| 반신불수 |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

건강과 성경이야기 4!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적송자(赤松子)와 왕지교(王之喬) 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송교지수(松喬之壽) 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혈액이 건강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분들의 상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용으로 혈압약과 어린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지만, 그것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동결겨있는 어혈을 잠시동안 녹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마도 녹여주면서 미세한 모세혈관도 같이 녹일수도 있으므로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탁하여 생기는 가장 큰병으로 각종 암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암을 방사선 치료로 고칠려고 하면 혈소판이라는것이 파괴되어서 더 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어떠한 암에 걸렸더라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 준다면 큰 수술 또는 방사선의 치료없이 완치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수 있는지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4장 21절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의 바다 위를 걸으셨을때, 베드로도 잠시동안 믿음으로 바다위를 걸었던 기록입니다.

21.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4.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이내용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하니깐 걸음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약 100미터 떨어진 육지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음이 구원이라는 영적의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두지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 들때 입은 옷도 벗는마당에 어부였지만 수영도 못하는 베드로는 반대로 걸음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믿음이 강해져서 바다위를 뛰어서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나무 불이 숲불이 필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렸던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한 혈액을 만들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3일과 7일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이 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종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종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 | | | | | | | |
|----------------|--------------|---------------------|--------------|----------------------|--------------|----------------|--------------|
| 본사(LA) | 213.435.9600 | 뉴서울호텔 (팔팔) | 213.386.5310 |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 714.690.0120 |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 310.619.7758 |
| 시온약국 | 213.382.6485 | LA벌론 마틴약국 | 213.382.9718 |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 714.670.7979 | 뉴욕,뉴저지 | 201.983.8333 |
| LA 아드모아약국 | 213.385.2135 |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 213.388.4100 | 에나하임 | 714.469.5809 | 시애틀 | 206.331.6655 |
| LA 한국마켓약국 | 323.464.3925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 213.388.0091 |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 909.595.4003 | 씨애틀 (건강마을) | 206.229.5466 |
| LA 베스트약국 | 213.385.9926 |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 213.380.5103 | 얼바인 | 949.330.9009 | 센루이스, 캔사스 | 314.570.9629 |
|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 213.384.6323 | 가디나 | 714.351.0440 |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 909.594.6370 | 하와이(생약촌) | 808.947.8086 |
| 에스약국 | 323.733.7788 |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 818.637.7708 | 랜초쿠카몽가 | 909.987.9500 | 시카고 알바니약국 | 847.699.1511 |
|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 323.733.7200 | 벨리 | 818.642.8223 |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 949.251.0193 |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 224.406.0337 |
| LA 다운타운 | 213.798.3333 | 벨리 소망 약국 | 818.832.2757 |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 562.402.8859 |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 770.457.1717 |
|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 213.739.3030 | 오렌지카운티 | 213.247.2244 |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 562.402.6972 | 텍사스 (로얄백화점) | 972.620.2900 |
| LA 6가 버질약국 | 213.384.1200 |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 714.228.9212 |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 562.402.6970 | 플로리다/NC/SC | 770.457.1717 |
| LA 사랑방 | 213.351.9552 |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 714.636.2588 |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 626.839.2868 | 캐나다 | 604.872.1669 |
| LA내쳐영양센터 | 213.739.8874 |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 714.730.2707 | 로렌하이츠 | 626.912.5727 | 세크라멘토/아리조나 | 602.332.6492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국제사회 지도자들 코펜하겐 테러 강력 규탄

반기문 총장 등 “아만적이고 개탄스러운 테러 행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연이어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코펜하겐에서는 14일(현지시간) ‘예술, 신성모독, 표현자유’라는 이름의 토론 행사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3명이 부상한데 이어 다음날 새벽 코펜하겐 노레포트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유대교 회당 앞에서 또 다른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

이번 총격은 마호메트 만평을 실은 파리의 풍자 주간지 샤흐리엠프도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발생해 10여 명이 희생된 지 한 달여 만에 일어났다. 총격이 일어났을 당시 토론 행사에서는 마호메트를 풍

자한 만화로 인해 테러를 당해 숨진 만화가를 기념하는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연자로 나섰던 스웨덴 만화가 라르스 빌크스(68)는 “이번 사건은 나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호메트 만평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아 왔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샤흐리엠프도사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강력한 어조로 반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으며, “현대 사회에서 반유대주의와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차별이 발붙일 공간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도 이번 사건에 대

해 “우리의 기본 가치와 자유를 겨냥한 또 하나의 야만적인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즉시 성명을 내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프랑스는 헬레 토닝-슈미트 덴마크 총리에 굳건한 연대를 표시한다”고 밝혔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코펜하겐 테러를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도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미국 안보위원회 버너렛 미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수사 기관은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손현정 기자

영성공회, “동성 커플 위한 기도” 허용 여부 논란

성예 관한 논의의 2단계 진입을 위한 문서 발간

영국성공회가 동성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기도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성공회는 최근 성예 관한 논의의 2단계 진입을 위한 문서를 발간했다. 성공회는 지난해 성 문제와 관련된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번 문서 발간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및 이성애자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각 교구는 3~5개로 구성된 13개의 클러스터 안에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는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구적인 동성 간 관계의 형성을 허용하는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다룬다. 또한 “만약 동성결혼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의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동성부부에 대한 목회적·선교학적인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은 매우 명쾌하지만, 어떤 ‘의도된 결과’를 암시하는 수단은 전혀 없다”고 했다.

영국성공회는 결혼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재혼은 더 어렵긴 하지만, 커플들은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의 행정

교구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영국성공회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을 얻은 커플들이 자신들의 교구 교회에서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 및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하다.

영국성공회가 지닌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모교회’로서의 위치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가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구들이 전세계 성공회 교단의 일부로서 지닌 책임감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각국의 성공회가 처한 지역적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진실된 방식으로 봉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다.

영국성공회 필립 그로브 박사는 “답은 한 가지 선택이 다른 선택을 덮는 데 있지 않다. 또한 긴장 속에서 각각의 선택이 지닌 장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절충안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은 둘 다를 향해 있다. 영국성공회가 선한 의견 충돌(good disagreement) 안으로 들어 가려는 것은 선교의 동력을 찾는 것이며, 사회와 신실함의 발견 간의 재결합에 대한 것이고,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다. 어렵지만 그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서 지금이 선한 불일치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콥트교회 수장 “IS에 참수당한 교인 모두 순교자”

프란치스코 교황도 “피로써 그리스도 증거” 애도 표시

세계 콥트교회 수장과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된 이집트 콥트교인 21명을 믿음의 순교자들로 칭하며 추모했다. 가톨릭 피데스 뉴스 에이전시(Fides News Agency)는 16일(현지시간) 이브라힘 이삭 시드락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이집트 콥트교인 참수 소식을 전해 듣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이 순교자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전하는 동시에 이 같은 테러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준 알렐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이집트 정부 기관들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 정부는 리비아에서 IS의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이번 콥트교인 참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살해당했다”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가톨릭 교인인지, 정교회 교인인지, 콥트교 교인인지, 개신교 교인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다”며, “그들의 피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피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한 “이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큐메니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이들 순교자들은 모두 동일한

기독교인들”이라며 이번 참수 사건에 대해 기독교 세계가 함께 애도하고 연합된 대처를 보여 줄 수 있기를 촉구했다.

IS가 15일 동영상을 통해 참수했다고 주장한 이들 콥트교인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리비아 시르테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서너(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참수를 자행한 지하디스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ICC의 토드 대니얼스 중동 지역 매니저는 성명을 통해서 “이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시금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ICC는 이집트 정부에 리비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이번 참수 이후 즉각적인 공습으로 IS에 대한 응징에 나선 동시에 희생된 21명을 위한 국가 애도의 기간을 선포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15일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집트와 전 세계는 극단주의적 사상을 전파하고 동일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극단주의 단체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집트 기독교계는 이번 참수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현지에서 이슬람과 연합해 테러리즘에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지 콥트교회 대변인인 하니 바크홈 키로울로스 주교는 “IS의 목표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들은 실패했다”며, “현지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번 참수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 정부가 즉각적인 응징에 나선 것은 이집트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에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콥트교회의 앙가엘로스(Angaelos) 사제는 영국의 한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에서 “용서는 기독교인의 권한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억압받는 이들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상대로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질 수 있겠는가? 보복, 적개심, 분노는 답이 아니며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손현정 · 강혜진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유럽 유대인 모두 이스라엘로 귀환하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유럽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15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유럽 내 반유대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유대인들 모두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의 고향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모두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격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토론회뿐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행인 한 명이 숨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했다”며, “모든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정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귀환법(Law of Return)을 1950년에 제정했다.

손현정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애틀란타 목사회 2월 월례회 개최

자랑스런 목사상, 평신도 봉사상, 행복한 가정상 제정 밝혀



애틀란타목사회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애틀란타한인목사회(회장 신윤일 목사) 2월 월례회가 16일 오전 11시부터 새날 장로교회(유근준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에서 말씀을 전한 유근준 목사는 '한 권의 소설책을 써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 하루가 역사다. 우리의 역사는 삶의 기록인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 우리를 보고 뒤따라오는 세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 있다. 합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서기 나종욱 목사(하나로교회)의 회원점명에 이어 목사회 회장 신윤일 목사(실로암교회) 사회로 안건토의를 했다.

2015년 목사회는 목사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자랑스런 목사상', '평신도 봉사상', '행복한 가정상'을 제정해 오는 5월 시상식을 거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신윤일 목사는 "추천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적어 목사회 임원단체에게 많이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목사회에서는 지난 10일 실로암교회에서 박용규 교수(한국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초청해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규 교수는 "사랑의교회 고 옥한목사의 평생 기도제목은 성령충만이었다. 목회자는 성령충만 해야"

한다.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조나단 에드워드), 성령은 모든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 사실을 성경말씀을 통해 증거 하신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사적으로 이단들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단을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은 삼위일체, 칭의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부인, 계시관, 왜곡된 종말론, 창조론과 타락론 등으로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감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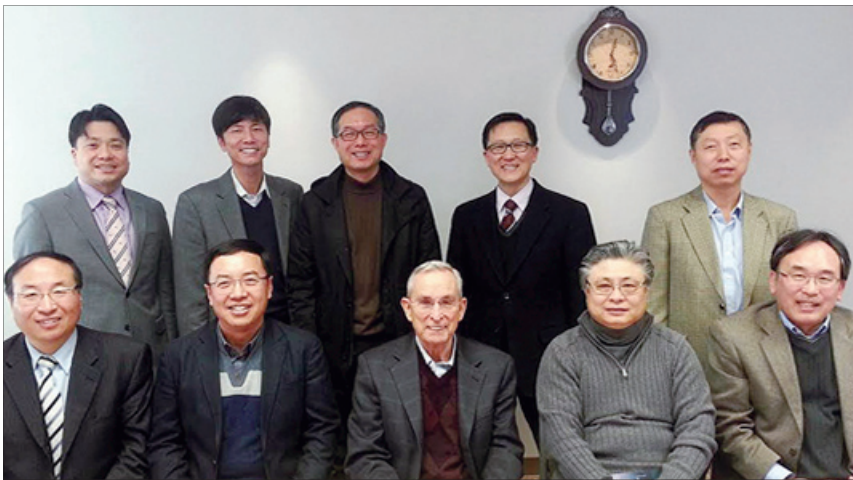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신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본질과 권능, 영원성에서 일체라는 의미"라고 다시 한번 거듭 거듭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박용규 교수는 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로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 총신대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M. Div.) 그 후 미국 포틀랜드 Western Evangelical Seminary에서 신학(M. A.), 시카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역사신학으로 신학석사(Th. M.)와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Visiting Scholar와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에서 Visiting Fellow로 연구했다.

윤수영 기자

광복 70주년 3.1절 맞아 제 8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개최

권 준 목사 강사로 "한민족 통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워싱턴주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3개 지역 목회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표 권준 목사(앞줄 맨 왼쪽에서 두번째) 총무 박상원 목사(앞줄 맨 오른쪽)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제 8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가 오는 3월 1일 오후 6시 30분, 웨더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기도회는 권준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삼일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 된다.

구국기도회 대표 권준 목사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되는 일에 워싱턴주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고, 통일을 위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회를 통해 복녘의 고통 받는 성도들과 억압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기도의 불길에 타오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무 박상원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최근 고국이 겪고 있는 아픔과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분단의 고통을 끊고 통일로 일궈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 사상과 교파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초대말을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반도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일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 제 8차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일시 : 3월 1일(주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웨더럴웨이 새교회
주소 : 33901 9th Ave. Federal Way, WA 98003
문의 : 박상원 목사 425-275-8072
김 브라이언 기자

교 회 신 교 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일, 미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 T(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너지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베네핏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현연성**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hnyoh@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신의 흐름, 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지교(Hear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직업을 넘어, 믿음으로 생애하고, 사랑으로 해.내.내.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공부 / 토요새벽-17와버몬트 3번지-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FC대한교회(67)와 라파예트 3번지-620 S. La Fayette Park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축복하며, 이만2세로 집중하며, 선교영광을 승천하며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내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바치는 교회(마: 45: 1)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테마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c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EM예배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금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희** 담임목사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예배 - 저녁 7:45 목요일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고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약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도회)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한빛장로교회 22주년 창립감사 기념예배

주님의 빛 발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되자



한빛장로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존스크릭 소재 한빛장로교회(담임 이문규 목사)가 지난 15일(주일)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성도들은 감사예배를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발걸음에 더 큰 사랑을 다짐하게 됐다.

교회는 창립기념을 맞아해 본당과 출입구 조명을 LED 전등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이영경 전도사를 초청한 '한바탕 웃음의 시간'을 가졌다. 물론 여성교회 연합으로 준비한 풍성한 친교 역시 기쁨을 더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사도행전 9장 31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문규 목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사람으로 빛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빛'은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빛교회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교회로 서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려 든든히 서나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핍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다. 그 분은 환란과 핍박 중에도 교회가 잘 견디고 든든히 서가도록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가 꼭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 두 번째로 사람을 사

랑하는 지혜, 마지막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위로로 든든히 서 나가야 한다.우리의 힘들을 아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반성하고 기도할 때 큰 위로로 함께 하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와 평강과 위로로 한빛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 더 든든히 서나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문규 목사는 "LED 전등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마음에 더 밝은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미 목표치를 초과해 달성하게 됐다. 나아가 이 빛을 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변화하고 성숙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 한바탕 웃음의 시간은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며, 함께 어울려 이를 만들어 가야 함을 경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했고 실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빛교회는 2015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알찬 교회(담전 4:4)"를 표어로 존스크릭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면으로 섬긴다는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 표어는 한빛장로교회의 '333비전' 중 첫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1.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알차고 복되며 빛된 공동체, 2.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3.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세우고 전하며, 천국을 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윤수영 기자

에스라성경연구원 헬라이어 강좌

나영애 목사, 주기도문 본문으로 헬라이어 강의



나영애 목사가 지난 10일 개강된 에스라성경연구원 헬라이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깊은 성경연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에스라성경연구원(원장 김재호 목사)이 헬라이어 강의를 개설, 10일 오전 9시-오후 12시까지 첫 강의를 가졌다.

이날 강의에는 평소 헬리아어를 통해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여해 3시간의 연이은 강의에 집중하는 등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특히 참석자들 중에는 중부 뉴저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참여하는 열정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에스라성경연구원의 이번 헬라이어 강좌는 신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강의를 아무런 제약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강사로 나선 나영애 목사는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한 강의에서 원어로 기록된 헬라이어의 실제 의미를 설명하면서, 더욱 깊은 신앙적, 신학적 교훈을 조망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부분 '엘레토 헤 바실레이아 수'에서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의 통치, 주권, 다스림을 말하고 이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나라 자체가 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다.

또 나영애 목사는 "주기도문 전체 구조가 헬라이어 문법상 부정 과거형 명령형으로 쓰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생명,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완성의 안식일까지 일하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에스라성경연구원의 헬라이어 강의는 앞으로 10주간 진행된다. 김재호 목사는 "처음 개설하는 강좌임에도 참석자들 중에 자신에게는 이번 기회가 창세기과 같은 감격이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이들도 있는 등, 이민교회의 성경을 향한 열정이 매우 큰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헬라이어 강좌 외에도 교회들에 유익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오레곤 밴쿠버한인장로교회

신년 감사 성회 개최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회복이 있길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회장 오광석 목사)가 주최한 신년감사성회가 은혜롭게 열렸다.

오레곤 밴쿠버 교회연합회(회장 오광석 목사) 주최 “신년감사성회” 집회가 지난 2월7일 오후 7시 밴쿠버한인장로교회(담임 지선목 목사)에서 지선목 목사의 인도로 밴쿠버연합찬양단의 준비 찬양, 최철우 목사(밴쿠버 기독교교회)의 대표기도, 오레곤 장로찬양단의 특송, 최신성 목사의 말씀선보, 하늘소리 합창단의 찬양, 김정국 장로의 헌금기도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를 인도한 지선목 목사는 오늘 집회를 위해 찾아준 성도들과 최신성 목사, 오레곤 장로찬양단, 하늘소리합창단 등에게 감사 드린다고 감사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한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거룩한 회복’이란 주제로 이번 집회를 인도한 최신성 목사(한국 계산중앙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에 열중하여 줄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인생이 변화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와 성령과 사명을 주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성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고 설교했다.

오레곤 장로찬양단 (단장 한영수)은 김석두 장로의 지휘아래 특송을 하였으며, 한국에서 특별히 방목한 “하늘소리 합창단(단장 윤혜선)” 단원 23명도 박제승 지휘자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참석하신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5곡을 부르는 등 신년감사성회의 은혜스러운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하늘소리 합창단은 이미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워싱턴 지역의 시애틀 형제교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오레곤 지역의 온누리 성결교회, 유진중앙장로교회, 포틀랜드 영락교회 등에서 연합 집회에 참여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감사성회에는 오광석 오레곤 밴쿠버교회연합회 회장, 지선목 오레곤 밴쿠버목사회 회장, 오형석 밴쿠버주님의교회 목사, 최철우 밴쿠버기독교교회 목사, 오정방 오레곤장로회 회장, 김형길 오레곤장로회 이사장, 한영수 오레곤장로찬양단장 등이 참석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재활 및 영성훈련

재활 발판 마련, 수료자들은 리더로 세워져 소그룹 인도해



디딤돌선교회 제 9차 노숙자 재활 및 영성훈련 수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딤돌 선교회(Stepping Stone Mission, 대표 송요셉 목사)에서 ‘제9차 노숙자 재활 및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9 일-13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18명의 노숙자들이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다.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주제로 매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의 강의를 있었고, 저녁에는 부흥회로 진행되었다. 특별초청 강사로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박진구 목사가 강의와 저녁 부흥회를 인도해 은혜를 더했다. 이외에도 여러 전문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도왔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노숙자들은 한결 같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하였다. 이번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은 리 폴린스 형제는 “이번 영성수련회는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 시간 7시간마다 너무 귀한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고 낯은 생애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자 결심했다”고 간증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일주일은 너무 짧다면서 적어도 2주일은 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디딤돌 선교회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 봄(2월)과 가을(9월)에 특별 재활 및 영성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훈련 받은 노숙자들은 리더로 임명 받고 직접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에 영성훈련원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시켜 이들로 하여금 매일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요일에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연합으로 드리고 있다.

이번까지 9차례에 걸쳐서 200여명의 노숙자 리더들을 훈련시켰으며 이들 중 많은 노숙자들이 재활에 성공하였으며, 남아있는 노숙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자기들이 돈을 모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다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다.

정기적인 훈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자 자녀 After School(수요일 오후), 나눔과 돌봄 봉사활동은 토요일 오전, 주일오후에 실시하고 있다.

- 연락처 404-429-9072(송요셉 목사)/www.steppingstonemission.net

권문정 기자

O.C. / 엘바인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학생찬양대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도 저녁 8:00 분당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1부 9:00am EM 1:30pm
장년2부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Youth 예배 12:15pm 토 6:00am
Children 11: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3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외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미: 7:20 PM(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방의 선지자요 구원자요 온전하신 분이 되셨고 본분대로 1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림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유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목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이슬람 세미나: 매일 첫째주 목요일오전 10:0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활: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침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Ci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목요일예배 오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성령예배 오후 10:30
최고등부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장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결혼교실, 시교도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 | | |
|---|---|---|
|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상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선교칼럼

日 선교 어렵다고 하는 이유들



현승권 선교사
나기시키통교
기념교회

일본인은 자신이 인간이기 이전에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치무라 간조도 “내가 예수를 더 좋아하는지 일본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였다. 일본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일본인을 파악하는 열쇠로 사무라이 시대의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일본인을 외면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키쿠바리(배려), 야사시(씩씩함), 질서의식, 절약정신, 근성(철저함) 등을 들 수 있다면, 이와 달리 일본인들의 내면을 대표하는 단어로 분노, 고독, 소심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듯 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하며 상냥한 그들의 내면에는, 가족과 친구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통하지 못하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고독,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억제된 분노, 그리고 다른 이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소심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특성은 사무라이 시대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전국시대 및 막부시대의 혹독하고 살벌한 사회환경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상황에서 저절로 굳어진 민족성이라고 여겨진다.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해야 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무장집단과 이들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출현하게 됐다. 그들은 보다 큰 권력과 토지를 얻기 위해 투쟁하였고, 그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개인의 생존 방식이 독특하게 굳어져 오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힘의 우세가 정의를 대신하는 무력투쟁의 혼란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인에게 영웅으로 추앙되는 세 사람의 인물, 즉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행적은, 그야말로 오늘날 일본인들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안정된 사회 유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오직 무력을 바탕으로 한 절대권력으로 대치하고,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살생으로 억압하고, 단지 소수의 사무라이 지배층의 과욕을 위해 대부분의 백성들의 희생과 고난을 방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수 지배층의 권력독점 구조는 군국주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력지배층의 이러한 무력적인 횡포와 억압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자의식과 자존감은 억압되어 상실되었고, 개인의 양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현대의 일본인의 정신구조가 이와 같이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구조를 대물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넓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일본선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는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어떻게 일본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한다.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만주 및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실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는 것은 분명 마땅한 일이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받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분들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용서의 화해가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화해가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를 이룬다고 해서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복음의 장벽이 사라지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 선교의 진정한 장벽은 과거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사를 만들어 온 일본인

들의 본질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대상자로서의 일본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작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길고 좁은 섬나라에 무려 1억 2,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좁은 섬나라에서 많은 인구가 생존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오랜 기간의 전국시대를 거쳐왔다.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압제를 강행하였고, 이러한 공포정치는 무려 500여년간 계속되어 왔다. 명분과 정의가 실현되기보다는 칼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특한 사회구조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즉 “힘이 있으면 정의이고 힘이 없으면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구조가 대물림된 가운데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또한 맥아더에 의한 강압적 개혁조차도 한국전쟁이라는 돌발변수에 의해 빛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일본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 개신교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힘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불 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오늘날의 일본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말로도 사과를 받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인들을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에 일본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강박한 심령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일본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들의 강박함과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심을 회개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일본인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돈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믿음으로 바꾸고 자존심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과거 잘못만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까지도 마음에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일본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일본인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본인이 아니라 현재의 일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본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사명이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 행복칼럼

사랑의 언어-고전 13:1



이선이 목사
듣는마음심리
상담센터 대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언어를,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케리 채프먼 박사는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람마다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

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언어만을 쓴다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반대로 만약 아내가 남편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채프먼 박사는 많은 사랑의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꼽는다. 그것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킵이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혼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배우자의 말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은 배우자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등이 있다. 서로가 감정적으로 집중시키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사실은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물하는 것이다. 선물은 사랑의 상징이다. 결혼 예물은 사랑의 표시가 된다. 어떤 사람은 선물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 선물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느낀다. 선물은 반드시 비싸야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깃든 선물이면 상대방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봉사는 배우자의 원하는 바를 해 주는 것이다. 설거지하기, 요리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등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스킵이다. 사람은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다.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고전 13:1)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이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여 소통하면 결혼 생활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되지 않을까 한다.

TOGO & 캐더링 환영

미글러 싸갈러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전문

정성껏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

후원금 정산내역



사랑의쌀나눔운동을 후원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후원

가나다순
단위: \$

| | |
|---------------------|--------|
| 가주세계선교교회(김선국목사) | 100 |
| 나성주님의교회(정삼희목사) | 200 |
| 나성소망교회(김재울목사) | 500 |
|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목사) | 2000 |
| 나성중부교회(김호목사) | 50 |
|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목사) | 1,000 |
| 동부사랑의교회(박승규목사) | 100 |
| 목자교회(김동술목사) | 100 |
| 물댄동산교회(백종윤목사) | 100 |
| 미주베델교회(정요한목사) | 200 |
| 미주예문교회(심진구목사) | 100 |
| 새벽이슬교회(윤해규목사) | 200 |
|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 | 2,000 |
| 성복교회(추창효목사) | 100 |
| 애틀랜트밸리한인교회(박청일목사) | 200 |
| 올리브교회(김창현목사) | 200 |
| 올리브나무교회(박병구목사) | 200 |
| 은혜가 샘솟는교회(고재원목사) | 200 |
| 주님의 마음교회(오경탁목사) | 200 |
| 주안예교회(최혁목사) | 15,310 |
| 주찬양교회(진석호목사) | 100 |
| 창대교회(이준준목사) | 300 |
| 풍성한교회(박호우목사) | 1,000 |
| 하늘영광교회(차권희목사) | 100 |
| L.A 열린교회(신석근목사) | 200 |
| L.A 창대교회(정홍이목사) | 100 |
| True Voice교회(박현동목사) | 150 |
| UBM 교회(김앤드류목사) | 500 |
| 총계 | 25,510 |

단체후원

가나다순
단위: \$

| | |
|---|--------|
| 국제오네시모선교회(대표 박상구) | 100 |
| 기독실업인회(직전회장 이병만) | 3,000 |
| 남가주수도여고동창회(회장 여영옥) | 1,000 |
|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 1,000 |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영균) | 500 |
| 라파선교회(문재성목사) | 200 |
|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김춘식) | 10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최재현) | 300 |
| 벨리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광덕근) | 200 |
| 벨리원로은퇴목사회(회장 문광현) | 100 |
| 사우스베이 가정상담소 (소장 박태순) | 50 |
| 샌버나디노 교회협의회 | 100 |
| 예수사랑선교회(대표 조병국) | 100 |
| 월서은행(월서지점) | 150 |
| 재미대한 LA 체육회(회장 신동화) | 200 |
| 재향군인회 서부지회(회장 박흥기) | 100 |
| 종교평화협의회 | 1,400 |
| 크리스천비전(사장 이정현) | 500 |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류당열) | 300 |
| 항아리바지락칼국수 | 100 |
| 3K Fashion USA Inc. | 100 |
| Cherish Apparel, Inc | 300 |
| Digital Fashion Academy | 100 |
|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 2,000 |
| John C. Ye 변호사 그룹 | 500 |
|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회장 정동철) | 200 |
| L.A 전도대학(진석호목사) | 100 |
| Law Offices of Leslie G Donaldes | 200 |
| Rohthem Inc | 300 |
| SANG AM & ASSOCIATES, INC | 1,000 |
| Sun Flower, Inc | 500 |
| Toska | 200 |
| Tres Bien Clothing, Inc | 300 |
| Woods & Yoo 변호사 그룹 | 400 |
| Zone Enterprises, Inc | 500 |
| 총계 | 16,200 |

개인후원

가나다순
단위: \$

| | | | |
|---------------------------|-------|-------------------------------|--------|
| 강병찬(기독교서적센터) | 200 | 이경희 | 150 |
| 강윤식(프론티어) | 50 | 이광영 | 200 |
| 강일환 | 500 | 이방걸/혜령(Lee & Lee CPAS) | 2,000 |
| 공태용(Terry & Friends Inc) | 200 | 이석원 | 150 |
| 구승환(Super Mercado Latino) | 500 | 이성근/사라 | 100 |
| 구자형 | 200 | 이승철(Tintype, Inc) | 500 |
| 길태우(Be Cool) | 100 | 이신재(One ten electric) | 100 |
| 김경일(Meineke Econo Lab) | 500 | 이영일/혜숙 | 450 |
| 김사라 | 1,000 | 이춘희(춘희미용실) | 300 |
| 김승환 | 100 | 이태환 | 50 |
| 김영갑(Welkin Sound Inc) | 300 | 이현경 | 100 |
| 김영광/영숙 | 100 | 이호목(3 Stars Mentoring, Inc) | 2,000 |
| 김용수/규실(Amway) | 300 | 이희성(전주바울교회) | 300 |
| 김용우(NTE) | 50 | 이희숙(영엔젤스어린이합창단) | 200 |
| 김용훈(남선당한의원) | 100 | 임훈/화연 | 1,000 |
| 김우남 | 50 | 전경숙 | 100 |
| 김인수(미주장로회신학대학 전총장) | 200 | 정민숙(Oscar's Snack Shop) | 100 |
| 김재동/정혜(NENE APPAREL INC) | 500 | 정인섭/경화(Sweet Factory) | 200 |
| 김제니 권사 | 200 | 정재덕 | 100 |
| 김종훈 | 200 | 정택상 | 100 |
| 김준형 | 20 | 조원용(Ola Mari, Inc) | 100 |
| 김진경/장지영(Joy 153) | 800 | 조은순 | 100 |
| 김창수 | 100 | 조재형(Countess) | 100 |
| 김창호(크리스천 헤럴드) | 100 | 최기준(Toska) | 200 |
| 김호식 | 100 | 최학량 | 50 |
| 김황희 | 200 | 추춘호 | 50 |
| 다니엘 | 50 | 케빈 헤(Eleven Star, Inc) | 300 |
| 무명 | 200 | 크리스틴 정(United Escrow) | 300 |
| 문광현 | 100 | 하재봉 | 100 |
| 박선우(Shin Sang) | 100 | Betty K. Oh | 50 |
| 박용자 | 200 | BIHO CHA CPA | 200 |
| 박정웅 | 40 | Chong S. Choe | 100 |
| 박준형 | 100 | C.S. Lee Tire & Service, Inc | 500 |
| 배부전(미주통일신문) | 10 | Dr. Kwak Yonsel Dentistry | 100 |
| 서영민 | 10 | Edward J. Chong | 100 |
| 손민수 | 50 | Evan Yoon | 20 |
| 심종섭 | 100 | Justin Yoon | 20 |
| 안덕문/경숙 | 200 | LA Maintenance & Painting | 200 |
| 안세라 | 100 | Moa Collection | 10 |
| 오성태(Cal Top) | 100 | Mr.임(Wonny Trim) | 100 |
| 오찬국(천사보석금) | 500 | Silk Road | 20 |
| 위재국 | 100 | Stella Son | 300 |
| 윤 라이언 | 20 | (SK Financial Solutions Corp) | 300 |
| 윤상현(YRI Pool Service) | 2,000 | Susie Hwang(X-Press Cleaner) | 50 |
| 윤영섭(Scott & Jean, Inc) | 200 | Tae U. Park | 300 |
| 윤종화 | 200 | | |
| 총계 | | | 22,620 |

제 6차 사랑의쌀나눔운동 후원금 전체정산 (1.31.15 기준)

교회(28교회) 후원 25,510
단체(35단체) 후원 16,200
개인(90명)후원 22,620
총 후원금액 64,330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공동주최: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 323-735-3000 Fax : 323-735-3111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 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어떻게 이슬람을 선교할 것인가?

■ 수 천년 이슬람 분쟁 원인과 IS의 출현 배경

최근 이슬람 반군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명의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고, 요르단 조종사를 잔인하게 화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 케일라 물러를 살해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퓌트교인 21명을 살해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며 같은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몰아 넣고 경악하게 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짐승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 내에는 왜 이러한 IS와 같은 반군 테러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슬람 내부 분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 깊은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 이슬람의 두 종파 : 수니파와 시아파란?

기독교가 크게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듯, 이슬람도 크게 두 종파, 곧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죽은 이후 누가 이슬람 신앙과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가를 놓고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된 것이다.

마호메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뒤를 이어 칼리프가 이슬람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이슬람 내에 권력 투쟁을 야기했고, 이슬람 공동체는 누가 마호메트의 진정한 후계자인가를 두고 두 종파로 나뉘며 분쟁을 하게 된다.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는 마호메트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호메트를 뒤 이은 모든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종교적 신앙적 지도자이다. 그런데 예언자 마호메트의 후손들만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

수니파는 이슬람 지도자들은 마호메트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아파는 오직 마호메트의 후손들만이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본격적으로 분쟁하기 시작한 시점은 661년 마

호메트의 후손이자 시아파 후세인 이븐 알리(Husein Ibn Ali)와 그의 아내가 우마이야 왕조 예지드 1세(Umayyad Caliph Yazid I) 통치하에 살해당하면서 한층 더 격화되었다. 그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는 지금까지 약 천년 이상의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 수니파와 시아파 중 어느 종파가 이슬람의 주류일까? 특별히 이슬람 분쟁이 왜 이라크에 집중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분포도와 이라크 내에 이슬람 분포도를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의 주류는 수니파로 전 세계 약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시아파는 소수로 약 10-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아파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류이고, 수니파는 약 35%로 소수에 해당한다.

| 이슬람 종파의 인구 분포 | | |
|---------------|--------|--------|
| | 수니파 | 시아파 |
| 전세계 | 85-90% | 10-15% |
| 이라크 | 35% | 60% |

그런데 이라크에서 시아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은 지난 100년간 수니파가 줄곧 장악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다. 후세인은 이라크 내 다수인 시아파를 억압하며 독재 권력을 유지해왔고, 후세인 통치하에 시아파는 큰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수니파 후세인을 제거하고, 시아파가 이끄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다.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이라크 내에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독점해온 수니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번 사태가 된 수니파 무장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IS)이다.

이들은 수니파에 이한 이슬람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라크 내에서는 새롭게 권력을 갖게 된 시아파와, 권력을 빼앗긴 수니파로 나뉘어 극심한 분쟁이 이어



정진오 목사
시온루터교회 한인담당 목사

져 내려 오고 있다.

■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이렇게 급성장하며,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3년 미국은 수니파 후세인을 제거하고, 친미 성향의 시아파 말라키를 이라크 정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세운다. 그런데 말라키 정부는 소수파인 수니파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결국 수니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라크 수니파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인해 주권을 빼앗긴 데다, 그 동안 자신들이

독점해왔던 정권마저 빼앗기는 이중의 수모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라크 수니파의 반미 저항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같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다른 수니파 국가들의 이슬람 전사들이 가세하면서 이라크 내 수니파 무장세력 IS는 급성장하게 된다.

둘째는 시리아의 내전이다. 약 40년에 걸쳐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 온 아사드(AI Asad) 정권은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에 속한다. 그런데 시리아에서는 이라크와 달리, 수니파가 다수임에도 시아파가 권력을 독점해왔다. 이에 시리아 내에서 수니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같은 수니파에 속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과 협력하여 시아파 아사드 정권 제거를 위해 시리아 수니파 반군 세력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이 즈음 시리아 반군 세력에 지원된 상당수 무기와 군수물자가 같은 수니파에 속한 이라크 무장 단체

IS에 건네졌다. 결국 IS는 같은 시리아 수니파 반군 세력과 정권 탈환과 수니파 국가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이라크 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그 세력을 뻗치게 되었다.

셋째는 2011년 5월 1일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을 계기로, 그 해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을 일부 철수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줄이고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이라크 말라키 정부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군의 철수는 도리어 IS가 세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 되었다.

■ 과격하고 잔악무도한 IS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IS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상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보다 제한적 공습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주도하는 공습이 해결책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가 정치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데는 국내외적인 여러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동의 정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국가의 협력이 절실하다. 2003년 미국이 후세인 제거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때 사우디와 요르단은 적극 협력했다. 이는 후세인이 자신들이 이단시하는 시아파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IS는 사우디와 요르단 등 주변 이슬람 국가와 같은 종파인 수니파에 속한데다가, 시리아에 주둔하는 일부 IS는 시아파 아사드 정권을 대항해 싸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S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의 지상군을 돕는 것은 같은 수니파를 탄압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이 이단시 하는 시리아 시아파 정권을 돕는 모양새가 된다. 이것이 바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IS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고, IS는 이런 정황을 심분 활용하여 더욱 잔악 무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어떻게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2003년 미국 타임지는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개종해야만 하는가?(Should Christian convert Muslims?)'라는 제목의 이슬람과 기독교 선교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타임지는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내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해 지적했다. 곧 기독교는 이라크와 이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파괴되어야 할 이단과 사탄의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가 물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한국 기독교 내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몇몇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단은 기독교 내에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지, 이슬람처럼 기독교 범주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적절한 훈련과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무슬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지만, 대부분은 극단적인 선교방법으로 도리어 무슬림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슬람을 믿는 것과 그 나라의 국민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동일시 되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슬람 선교는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들다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주의해야만 한다.

첫째는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슬람은 파괴되고 없어져야 할 이단이나 사탄의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훈련과 준비없는 극단적인 선교방식이다. 이슬람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슬람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도리어 무슬림들의 갈등과 반발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이슬람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선교전략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추측 확장이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함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뿔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하악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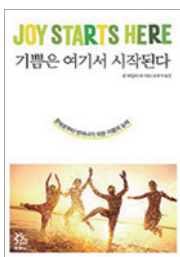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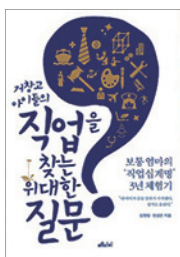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짐 와일더 외 | 두란노 | 428쪽

‘고통에도 꺾이지 않을’ 기쁨의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한다. 기쁨이 상실된 이유와 과정, 기쁨의 대용품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많은 일들, 기쁨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한다. 트라우마와 중독에 대해 연구해 온 저자는 최선의 해결책이 ‘기쁨의 회복’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세대 공동체’, ‘임마누엘 생활방식’, ‘뇌의 관계 기술’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강현정, 전성은 | 메디치미디어 | 228쪽

‘명문’ 거창고등학교의 인성교육 바탕에는 ‘직업 선택의 십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거창고 3대 교장인故 전영창 선생의 가르침을 10개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저자는 이 ‘직업 십계명’을 탐구하기 위해 3년간 교사와 학생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졸업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직업 십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자녀가 ‘당당한 직업인’이길 바라는 부모들에게 추천한다.



더 바이블
마크 버넷, 로마 다니니 | 아드폰테스 | 448쪽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을 비롯해 지난해 <노아>, <선 오브 갓> 등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이 같은 ‘바이블 무비’ 열풍의 근원지는 블루버스터 ‘미드’ <더 바이블>이다. 케이블TV 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프로그램을 활자화했다. 성경 이야기를 충실히 살려내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아 대중들에게 어필했다.



그리스도인은 왜 아무거나 먹을까
프레드 빈슨, 노먼 워즈바 | 흥성사 | 208쪽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먹을거리에도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 이원론의 폐해로 환경과의 조화 대신 극복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기반한 영성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로고스’는 상명하복이나 기계적·추상적 과정으로 이룰 수 없으며, 몸을 맞대고 땅과 가까워져야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



REVIEW

수도원 영성 통해, 더 깊고 복합적인 선교로

탄생 100주년 맞아 출간된 토머스 머튼 입문서

지난 1월 31일은 ‘칠층산(The Seven Storey Mountain)’으로 유명한 영성가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출판사 비아(VIA)에서는 이를 맞아 토머스 머튼 입문서인 <토머스 머튼: 은둔하는 수도자, 문필가, 활동하는 예언자>를 펴냈다. 영국성공회 사제이자 영국·아일랜드토머스머튼학회에서 펴내는 ‘머튼 저널’에 머튼 관련 글을 썼던 저자는, 토머스 머튼을 ‘영성’과 ‘선교’가 균형 잡힌 인물로 평가한다. 그의 글은 21세기 선교 지향 교회에 풍부함을 가져다 주며, 중요한 질문

과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토머스 머튼은 수도사이며 기도에 관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쉽게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현대 세계가 서구 그리스도교에게 던지는 많은 도전들에 ... 점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영성과 선교를 함께 아우르고자 했다.” 책은 입문서답게 머튼의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들음, 예언, 사랑, 초연함 등 여러 갈래로 압축해 소개한다. 이후 “머튼의 통찰과 비전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직 이를 행할 때에만 알 수 있다”며 “교회는 머튼



토머스 머튼
키스 제임스 | 비아 | 100쪽

이 묘사한 수도원 전통과 사막 교부들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한

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교를 더욱 깊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세계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토머스 머튼은 1915년 1월 31일 프랑스 프라드에서 태어났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1939년부터 가톨릭 교회에 출석했고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던 1941년 캔터키 겐세마니 수도원에 가입해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1948년 펴낸 자서전 <칠층산>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일기와 예사이, 시, 동양 영성 연구 등 다양한 주

제의 책을 펴냈다. 그가 1968년 53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고는 뉴욕타임스 1면에 실렸다.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이 가장 추종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부록으로 독자들을 위해 머튼의 저작 목록과 국내에 소개된 대표 저작 7권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달아 놓았다. 수도자적 영성과 예언자적 영성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하는 신학자와 목회자 등에게 새로운 방향과 가치 모색에 매우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대웅 기자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성화특별기획전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고통 속에 신음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 것인가

블레이즈 파스칼의 광세, 인간은 신앙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탈리아에 단테가 있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파스칼이 있다는 말이 있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수학자·철학자·물리학자·발명가·저술가인 동시에 종교사상가였으며 평신도 신학자였다. 그는 오베르뉴 지방의 클레르몽(Clermont)에서 태어났다. 4세 때 모친이 별세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행정 관료였던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1588-1651)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다.

파스칼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천재적'이라는 말이다. 많은 전기 작가들과 해석자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파스칼은 단 몇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뜻을 해낸, 희귀한 천재의 무리에 속한다.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신학자에 문학가였던 그는,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파스칼은 진지하게 탐구하고, 성실하게 사색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그의 사상과 생애를 일관하는 것은 성실한 탐구의 정신이다.

파스칼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저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출간되지 못했고, 그는 저술을 위한 많은 메모를 남겼다. 그가 죽은 뒤 가족과 친지들은 그가 저술을 위해 남겼던 메모들을 모아 번호를 붙여 보관했다가 그 메모들을 문제 중심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단행본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다름이닌 <광세>이다.

그의 유고집인 <광세>는 본래 <기독교 변증론>을 집필하기 위한 단편적인 메모들이었다. 초판은 <종교와 그밖의 약간의 주제에 관한 파스칼의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1670년에 간행된, 이른바 '포르투아 알 판'이다. 그 후 자필 원고와의 대조 작업이 계속되어 새로운 판본들이 생겼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신앙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신앙을 지지해 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성취된 예언과 이적, 역사의 증거, 성경의 자체 확증 등이다.

파스칼은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문제를 논하면서 '인간의 비참'을 깊이 취급한다.



파스칼의 광세
조병준 옮김 | 샘솟는 기쁨 | 264쪽

파스칼이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다. 비참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러나 그 비참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이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무한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로 그는 영광과 순결의 상태에서 비참과 오욕의 상태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은 오류로 가득찬 존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이것은 파스칼의 사상과 생애를 일관하는 근본 태도였다. 그는 신음하면서 진리를 추구한 사상가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 하나는 이 '괴로운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다. 파스칼은 신앙을 통하여 궁극적 확신과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였다.

이 추구는 절대적 진리의 품안에 안길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구 그 자체가 은총의 시작이다. '신음하며 추구하는' 영혼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 즉 신음하는 영혼은 은총의 기적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영혼의 신음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후에도 계속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스스로를 견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지적한다. 그래서 "이성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이성에 적합한 것은 없다"고 말

한다. 파스칼에 따르면,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성의 마지막 절차는 이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이 이를 인식할 정도로 멀리 보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연약한 이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무한히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에 복종시킨다면, 우리의 종교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성의 법칙을 위반하면 우리의 종교는 불합리하고 조롱받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파스칼의 기독교 변증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악과 비참에 있어 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인간은 악과 비참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덕과 행복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오직 악, 비참, 어둠, 죽음, 그리고 절망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모른다. 파스칼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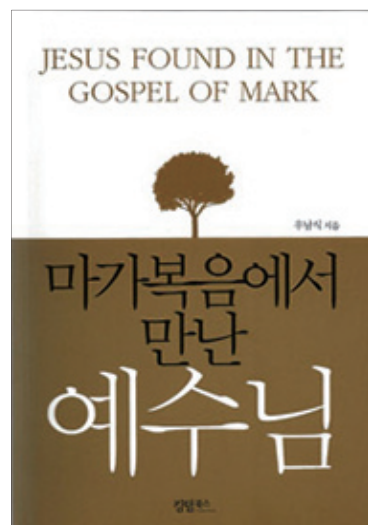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파스칼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가진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광세>는 인류의 영원한 사상적 유산 가운데 하나요, 그의 사상과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기독교 고전이다.

세월이 갈수록 <광세>는 기독교와 사상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이 책을 아우구스티누스에 견주는 기독교 고전으로 여긴다. 독자의 수로 따진다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한국교회 살 길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배우는 것



마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
우남식 | 킹덤박스 | 620쪽

성경 각 권을 대상으로 '~에서 만난 복음'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는 우남식 목사(대학마을교회)가, 이번에는 복음서를 대상으로 '~에서 만난 예수님' 시리즈를 시작했다. '복음' 시리즈는 2011년부터 매년 창세기과 로마서, 사도행전 등이 발간됐다.

우남식 목사가 이번에 펴낸 <마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킹덤박스)>은 마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53차례에 나눠 강해하고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님', '제자를 양성하신 예수님', '행동하신 예수님' 등을 증언하고 있다.

우 목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며 "요즘처럼 '섬김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도 없는 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교회나 사회의 모든 직임의 목적은 섬김에 있으나, '섬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회나 사회가 늘 시끄러운 것"이라며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영접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서 복음의 햇빛,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 땅 끝까지 만민에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우 목사는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단언한다.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으면 "나는 이 만큼 했으니 너도 이 만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은 그 자체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섬김 후에 자신의 의를 구하거나 내세우지도 않는다(눅 17:7-10).

구체적인 섬김의 도(道)는 말씀과 기도, 섬김의 본 등 잘 알려진 사항들 외에 '관심'을 꼽았다. 관심에 대해선 "사람들은 지나친 관심

이 실례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은 사랑"이라며 "관심에는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이해가 요구되고, 관심을 가지려면 자존심을 버리며 이기심을 깨고 마음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람의 위대한 정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가에 비례한다"며 "아기와 자기에 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과 아버지밖에 되지 못하지만,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세계인이 된다"고 전한다. "관심의 폭과 깊이는 섬김의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우 목사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듯, 우리도 집에서, 직장에서, 각기 공동체 내에서 서로 섬기며 살기를 기도한다"며 "세상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우기만 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역설한다. 섬기는 곳에 은혜와 기쁨, 사랑과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때문이다. 책에서는 부록으로 53차례의 강해 내용에 대해, 세 가지씩의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우남식 목사는 그는 최근 2004년과 2014년의 '대학생의 성의식과 가치관'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고, 본지를 통해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원하지 못한 전신기능의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 예방, 원인을 밝혀내서 상임연방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어국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로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돈가스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윈현대 칼슨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보수원형 회복해 이 땅에 하나님나라 세울 것

한기보협, 제30차 정기총회 열고 새 회기 포부 밝혀



한기보협 총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 한기보협)가 12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기보협은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재정 결산을 통과시켰고, 새 회기 사업들을 보고했다. 특히 그 동안에도 한기보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보수원형(본질)회복운동'에, 올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범성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서구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WCC와 자유주의·세속주의·물질만능주의·종교혼합 때문"이라며 "우리는 한국교회를 초대교회로 변화시키는 보수원형회복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제일주의, 십자가의 진리로 한국교회를 바꾸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며 "보수원형회복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생명력을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기보협 성경보수원형회복위원회는 "성경원형(본질)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질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종교로 타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보수원형회복운동은 이렇게 추락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이 패역한 사태를 간과할 수 없어, 성경의 보수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들을 각성시켜,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박동호 목사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요 17:21~2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의 교회는 갖가지 이단 사설 및 왜곡된 거짓 진리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 협의회가 바로 서야 산하 회원 교단과 지교회들이 안정될 수 있다. 지교회들이 안정되어야 영혼 구령 사업, 즉 선교 사업에 매진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어 우리나라 교계와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이끌자"고 역설했다.

하석수 기자

길선주·이기풍·한경직·주기철 손양원·장기려의 신앙

한복협,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통해 조명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13일 오전 인천송월교회(담임 박삼열 목사)에서 '선배님들의 회개와 섬김과 순교의 신앙을 사모하며'를 주제로 열렸다. **故 길선주·이기풍·한경직·주기철·손양원 목사, 故 장기려 박사**의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발표는 총 세 가지 주제 아래 각 주제별 2명씩 발제하는 형식이었다. 첫 주제는 **故 길선주·이기풍 목사**의 '회개 신앙'이었고, 이견영(인천제2교회)·이정익(신촌성결교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이견영 목사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은 다른 사람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 아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참회하는 것이었다"며 "오늘날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진정한 참회가 없는 신앙생활과 봉사, 우리를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이 목사는 "내년이면 한국교회 부흥운동 110년을 맞이하게 된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에서 시작된 부흥운동과 이기풍 목사님의 회심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신앙운동"이라며 "이제 교회는, 그리고 지도자는, 먼저 그 누구를 향한 외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를 힘써야 한다.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만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고 전했다.

이어 이정익 목사는 **故 길선주 목사**에 대해 "자신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1907년 평양 대각성부흥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게 된 것은 온전한 성령운동이 아닌, 교회의 양적 운동에 치우친 결과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회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고, 세상은 교회가 방주이자 피난처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故 이기풍 목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가 됐다"며 "그리고 제 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는 보석과 같은 신앙의 삶으로, 일제 말기 신사참배 문제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희망의 밑알이 되어 주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는 **故 한경직 목사**와 **장기려 박사**의 '섬김 신앙'이었고, 김상현(인천부광교회)·전병금(강남교회) 목사가 발제했다. 김상현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이 열여섯 살이 되자마자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이라며 "교회가 개인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전병금 목사도 **故 한 목사**에 대해 "일신의 성공과 안락함보다는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고 마지막 대변인이 되고자 하셨다"며 "개신교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른이셨으며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이셨다. 이런 한경직 목사의 섬김의 신앙이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했다.

故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는 "평생에 걸쳐 사랑과 섬김의 신앙을 묵묵히 실천했던 모습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그가 남긴 말을 마음에 되새겨 본다. '우리 주위 어딘가에 병든 이웃과 가난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처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주제는 **故 주기철·손양원 목사**의 '순교신앙'이었고, 주승중(인천주안장로교회)·오정호(대전새로남교회) 목사가 발제했다. 먼저 **故 주기철 목사**를 돌아본 주승중 목사는 "한 마디로 주기철 목사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이었다"며 "그의 이런 순교신앙은 그의 설교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설교가 평양신학교 사경회 때(1935년) 행한 '일사각오(요 11:16)'라는 설교다. 그는 이 설교에서 3가지 일사각오, 즉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그리고 부활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를 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전해 주신 순교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힘차게 외쳐져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제77차 정기학술대회 열려

조동진 박사 등 주제발제, 비서구 선교운동 및 이슬람 등 다뤄



KEMS·GMS 공동학회 및 정기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KEMS·회장 노윤식 박사) 제77차 정기학술대회가 예정함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김재호 박사)의 초청으로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 조동진선교학연구소 바울의 집에서 열렸다. 조동진선교학연구소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교회 최초의 세계선교박물관으로 GMS 선교센터 내에 개관한 조동진선교기념관에 자리해 있다.

KEMS·GMS 공동학회와 겸하여 열린 이날 1부 주제발표는 KEMS

총무 신경규 박사(고신대)의 사회로 조동진 박사(91)가 발표했다. 조 박사는 '비서구 세계선교 운동의 역사적 조망'에 대한 발표에서 서구의 제도적 교회의 종식을 언급하고 비제도적, 사도적 신앙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1966년 베를린 세계선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후 각종 세계선교대회에서 한국 대표로서 '서구 제국주의 선교방식'에 대해 지적해 온 그는 '비서구 사도적 선교 방식'을 주창하는 등 한국 선교학계의 살아있는 전설

로 불린다. 또 '바울의 집'을 설립하여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아시아선교협의회(AMA)를 공동 창립했으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3대륙을 대표하는 제3세계선교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비서구선교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조 박사가 설립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30여 년 동안 비서구선교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정립하고 연구하는 일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2부 주제발제에서는 GMS 훈련원장 조용성 박사가 '현대 이슬람 연구: 패톨라 굴렌 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소윤정 박사(ACTS)가 논평했다. 패톨라 굴렌은 현대 이슬람 운동의 대부분서 3가지 중심철학, 곧 '배움(교육)', '삶의 정결', '사회 참여의 정신'으로 이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교육과 경제계를 장악하고, 헌신된 무슬림들이 각 국에 '거룩한 이동'을 통해 유럽과 전세계에서 이슬람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굿네이버스는 기독교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